

암세포만 정밀 타격... 방사선의약품, K-바이오 새 무기

퓨처켄, ‘프로스타뷰’ 국내 품목허가 상업화 모델 ‘현지 생산형’ 고도화 베트남 독점 라이선스, 공급·유통 듀켄바이오 ‘비자밀’ ‘뉴라체크’ 전국 12곳 제조시설, CDMO 확대 노바티스, 생태계 구축에 1400억 투입 SK바이오팜, RPT 치료제 개발

‘약 넣고 영상 찍으면 암세포 위치가 보이고 약은 암세포만 타격해 치료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질병을 정밀 진단하고 치료하는 ‘테라노스틱스’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짧은 방사능 반감기와 까다로운 제조 공정 탓에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국산 신약 허가, 글로벌 시장 진출 등과 맞물리며 K바이오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퓨처켄은 올해 들어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국내 품목허가 획득과 함께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스타뷰는 올해 5월 국내 식품의약



지난 21일 국내 퓨처켄과 베트남 하노이조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대운 퓨처켄 대표(왼쪽)와 응우옌 테 빈 하노이조사센터 디렉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퓨처켄

품안전처에서 제43호 국산 신약으로 승인됐다. 프로스타뷰는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쓰인다. 환자에게 정맥 투여 후 PET-CT 촬영을 하면 암세포 위치와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임상 3상에서 CT, MRI 등 기존 영상검사 대비 진단 정확도를 유의하게 개선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퓨처켄은 방사성 의약품 상업화 모델을 ‘현지 생산형’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완제품 수출 대신 핵심 소모품(카세트, 전구체, 시약 키트)을 독점 공

급하고 현지 파트너사가 최종 주사제를 제조·유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 하노이 조사센터(HIC)와 ‘프로스타뷰’ 베트남 독점 라이선스 및 공급·유통계약을 체결했다. 퓨처켄은 계약금 10만 달러를 확보하고 향후에는 베트남 내 프로스타뷰 순매출의 15%를 경상 로열티로 더 받는다. 특히 제조기술 이전 및 2050년까지의 장기 로열티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반복 매출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다졌다는

평가다.

앞서 5월에는 인도네시아 의료가기 유통기업 TMI와 ‘프로스타뷰’ 공급·유통계약을, 이어 7월에는 인도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슈리지 이미징 및 진단센터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알자뷰’ 독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듀켄바이오 역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중심으로 정밀 의학 생태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듀켄바이오의 ‘비자밀’, ‘뉴라체크’ 등은 치매 치료제를 투약하기 전,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글로벌 치매 치료제 ‘레캠비’ 등의 처방과 함께 듀켄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진단제 역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듀켄바이오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7.5% 급증한 영업이익을 올리며 강력한 수익성을 증명했다.

이미 듀켄바이오는 전국 최대 12곳의 제조 시설을 갖췄고 이를 바탕으로 방사성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안에 전용 연구소와 생산 공장 확충에도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를

이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 잇따라 진입하면서 위탁 생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바티스의 경우,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약 14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 역량과 의료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임을 인정한 성과로 풀이된다.

국내 대기업 역시 국산 방사성 의약품 가능성을 높인다.

SK바이오팜은 NTSR1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RPT 치료제 ‘SKL35501’과 영상진단제 ‘SKL35502’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세계 최대 암 학회인 AACR에서 전임상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등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한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암은 물론 중추신경계(CNS) 질환 등에서 국산 신약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쌓는 수준에서 R&D, 진단망, 생산거점 등을 잇는 K바이오 허브로 도약하는 준비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씨씨엘, 글로벌 신약개발 통합 서비스 구축

젠파마텍 비임상 연구 모델 연계 개념검증부터 임상시험까지 효율화 韓·美·中 중심 마케팅·네트워킹 추진

GC녹십자그룹의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지난 21일 글로벌 비임상 위탁연구기관(CRO) 기업 젠파마텍과 ‘글로벌 신약개발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 신약개발 전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씨씨엘의 임상시험 검체 분석 및 관리 역량에 젠파마텍의 비임상 연구 모델을 연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비임상 개념검증 단계부터 임상시험까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질환과 차세대 치료 접



지난 21일 (왼쪽부터)젠파마텍의 브랜드 윌킨슨 북미법인 대표,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 상가오 젠파마텍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그룹

근법으로 영향력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향후에는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및 네트워킹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젠파마텍의 브랜드 윌킨슨 북미법인 대표는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 후보물질 발견부터 임상 진입까지 더욱 빠르고 효율

적인 개발 경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사들이 비임상과 임상 단계 사이에서 보다 높은 연속성을 가지고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오 젠파마텍 회장은 “양사는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한 신약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이번 협약은 지씨씨엘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제약·바이오 고객사에 보다 통합적인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젠파마텍의 비임상 생체내 효능평가 역량과 지씨씨엘의 임상단계 검체분석 전문성을 연계해, 고객사가 초기 연구에서 임상 개발 단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월매출 1억 ‘으뜸스시’, 부산 명지점 개점

개점 기념 최대 20% 할인 혜택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으뜸에프앤비가 국내 전역의 핵심 상권에서 회전초밥 브랜드 ‘으뜸스시’를 확산하고 있다.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 중심 성장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으뜸에프앤비는 22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으뜸스시 제37호 매장으로 ‘부산 명지점’을 공식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매장은 부산 명지 지역 대표 상권인 대방디엠시티 센텀오션2차 상업시설에 입점했다. 대규모 주거 단지, 학원가, 오피스 등이 밀집해 있어 가족 외식, 학생 고객, 직장인 식사 등 다양한 소비층의 방문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또 우수한 접근성과 넓은 주차 공간까지 갖췄다.

이와 함께 으뜸스시 부산 명지점 개점을 기념하는 할인 행사도 열린다. 오는 24



으뜸스시.

일까지 해당 매장에는 전 메뉴 10% 할인, 리뷰 작성 시 추가 10% 할인 등 최대 20% 할인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으뜸에프앤비는 올해 하반기 전국 단위 출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충북 오창점(38호점), 제주 연북로점(39호점), 서울 길음뉴타운점(40호점)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9월에는 강원 춘천 명동점(41호점)도 추한다. 현재 제50호 지점까지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제로음료 ‘소다 활’ 판매

동화약품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첫 협업을 진행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소다 활’ 판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리아 세트 메뉴 주문 시, 기본 탄산음료를 소다 활로 변경하면 된다. 버거와 함께 ‘소다 활’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한 소다 활은 동화약품의 가쓰랄 코어농축액 10mg을 함유한다. 계피, 건생강, 소두구 등을 배합한 원료에 쿨링향을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노폐물 제거하고 자외선 차단까지 한 번에”

동국제약 ‘마데카선틸드 패드’

동국제약이 피부결 정돈, 자외선 차단, 피부 진정 등을 한 데 담은 신개념 자외선 차단제를 선보인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선틸드 패드’ (사진)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부를 닦아내듯 사용하는 제품이다. 피지, 땀, 미세먼지 등 피부 표면의 노폐물은 제거하면서도 자외선 차단 성분은 피부결을 따라 고르게 밀착된다. 눈가와 코 주변 굴곡진 부위부터 목, 팔 등 넓은 부위까지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손에 묻는 잔여감을 줄일 수 있고 손으로 피부를 직접 만지지 않고 덧바를



진 피부를 진정시킨다. 또 10종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 보습을 강화해 준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선틸드 패드는 여름철은 물론, 캠핑, 골프, 등산 등 다양한 야외 활동 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수 있어 위생적이다.

패드 한 장에 선크림 액상을 처방했다. 병풀추출물을 비롯한 시카 성분을 함유해 자외선과 외부 열 자극으로 민감해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운영 국내 유망 바이오텍과 협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유망 바이오텍과 협업하며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6 서울 바이오허브-삼성바이오에피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함께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국산 차세대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참여 기업으로는 ‘프레이지테라퓨틱스’와 ‘바이온사이트’가 최종 선정됐다.

프레이지테라퓨틱스는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을 갖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질병 원인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에 쓰인다. 바이온사이트는 화학단백질체학을 응용한 신약개발 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술 고도화,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 공동연구, 기술이전, 공동 사업화, 전략적 투자 등 실질적인 협업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바이오 기술 발굴 및 조기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